

광주시향 정기연주회 '임을위한 심포니' 광주-서울-도쿄서 울려 퍼진다

김대성 작곡 교향시 '민주' 8일부터 순회 공연

김대성 작곡 '임을 위한 행진곡' 주제에 의한 교향시 '민주(民主)'가 김홍재가 이끄는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피아니스트 콘도 요시히로의 연주로 광주와 서울, 일본 도쿄에서 울려 퍼진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 제작·보급사업 일환에 김대성 작곡가를 위촉해 관현악곡으로 재탄생시켰다. '민주'는 지난 5월 5·18기념음악회에서 초연됐으며, 7월 체코 리히텐슈타인 궁전에서 열린 체코특별음악회에서 연주된 바 있다.

오는 8일 광주문화예술회관을 시작으로, 10일 서울 예술의전당, 12일 일본 도쿄 파르페는 타마홀에서 진행되는 특별음악회를 통해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친한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관현악곡, 협주곡, 독주곡, 오페라, 뮤지컬, 무용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발표하며 활동 초기부터 주목을

받은 김 작곡가는 "김남주 시인의 시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월의 싸움' 등을 비롯해 직접 찾아갔던 망월동에서 본 묘비문 '민주주의의 신세력으로 부활하여라'에서 영감을 얻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새벽이 시작되기 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썼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5월 초연 당시 함께 했던 광주시향 김홍재 상임지휘자가 이번 특별 연주회에서 다시 한번 지휘봉을 잡는다.

'대담하면서도 섬세하고 신비적이면서도 활력 있는 기교와 감성'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김상임지휘자는 독일에서 운이상에게 사사했고,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한 곡 '광주여 영원하라'부터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까지 한국인의 정서와 광주정신을 대표하는 곡들에 애정을 갖고 많은 공연에서 선보인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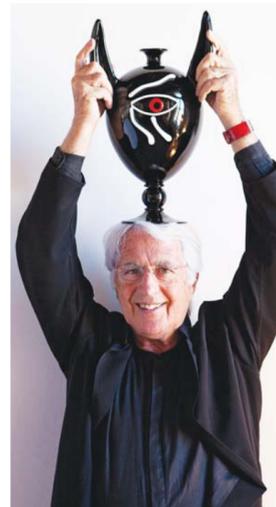
2017년 오스트리아 부르크너 하우스 공연의 광주시립교향악단.

피아니스트 콘도 요시히로는 1991년 도호음악대학을 수석 졸업한 뒤 뮌헨 국립 음대에 입학해 게르하르트 오피츠를 사사했다. 1995년 데뷔 리사이틀을 시작으로, 2004년 뉴욕 카네기홀, 2006년·2017년 빈 뮤직헤라인 콘서트홀 등 세계적인 홀에서 독주회를 열었다. 또, 쇼팽과 라벨 피아노 협주곡 등 총 30여 개의 CD를 발매하는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임을 위한 행진곡' 세계화·대중화를 위해 국내·외 저명한 작곡가 4명을 위촉, 다양한 형태의 관현악곡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황호준 작곡가의 '임을 위한 서곡', 김대성 작곡가의 '민주', 작곡가 마이클 도허티의 '민주의 노래', 박영란 작곡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주제에 의한 피아노 협주곡 '5월, 광주'가 연주됐다. /이보람 기자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

이탈리아 대표 디자이너 클레토 무나리 개인전
광주신세계갤러리, 만년필·시계 컬렉션 등 선보



클레토 무나리



Lighthouse, pen the noble literature price wole Soyinka

광주신세계갤러리는 4일부터 23일까지 이탈리아 대표 디자이너 클레토 무나리(Cleto Munari·89)의 개인전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에서'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열리는 클레토 무나리의 최초 개인전이며 부산 센텀에서 시작해 대구, 광주로 순회하는 전시다.

클레토 무나리는 이탈리아 고리치아 출신의 디자이너로 자유로운 감성과 창의성을 보여주며 포스터 모던 디자인의 초석을 만든 현존하는 거장이다. 가구, 공예, 주얼리 등 획일적인 형식성을 거부하는 그의 전위적인 작업은 90세에 가까워진 지금까지도 열정을 다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가구, 공예, 도자기 등 1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 중 만년필과 시계 컬렉션은 건축가, 아티스트와 협업한 프로젝트로 만든 것이다.

무나리의 작업은 과감한 패턴, 화려한 색채, 비도시적인 형태를 특징으로 한다. 고대의 신화나 르네상스

미술에서 모티프를 차용하면서도 독특한 초현실적인 형상을 더하기도 한다. 그의 함축적이고 독특한 패턴들은 예술의 근원적 유희성과 내러티브를 담고 있다.

개성 강한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며 유희적 역할을 하였던 그의 사업가 기질은 이탈리아 디자인 역사에 중요한 작품들을 탄생시킨 원동력이 됐다.

무나리와 그의 친구들이 펼친 진보적인 컨셉, 혁신적인 아이디어, 실용주의적 디자인은 키치 미학으로 모더니즘 독단에 반기를 든 '양식적 부정부주의'로 평가된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에게 경의를 표하며 3명의 아티스트(이토 토요, 알레산드로 멘디니알바로 시자, 오스카 투스케 블랑카)와 협업한 펜 컬렉션,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네 명의 건축가(이탈리아의 에로 레 소사스, 한스 홀라인, 미국의 마이클 그레이브스, 일본의 아라타 이조자키)와 협업한 시계 컬렉션을 이번 전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360-1631. /이연수 기자

전남도립국악단, 지진 극복 구마모토에 감동공연 선사

한일문화교류센터 준공기념

전남도립국악단이 지난달 일본 큐슈의 구마모토시 한일문화교류센터 준공 기념 한국전통예술 공연을 펼쳐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2016년 구마모토에 발생한 지진 피해로 인해 교민들의 연락처이자 모국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재일민단 구마모토현 지방본부 건물도 파손됐다. 교민들의 성금과 일본 전역 민단본부들의 동참으로 2년이 흐른 지난달 준공된 3층 회관 건물은 '한일문화교류센터-구마모토'로 명명됐다.

한·일간 사회·문화·친선 교류와 우호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문화센터 공간으로 확대해 기념해 한일문화교류-구마모토 주축로 전남도립국악단 초청 한국전통예술공연이 마련됐다.



전남도립국악단이 지난달 일본 큐슈의 구마모토시 한일문화교류센터 준공 기념으로 초청돼 한국전통예술 공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은 지난 20년간 남도와 큐슈 지역간 교류와 우호 친선에 기여해 온 남도한일문화친선시민모임 김석중 대표의 진행으로 성사됐으며, 현지에서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전남도립국악단 사물팀은 준공식에서 지진被災 공연으로 역운을 물리치고

번영과 화평을 기원했으며, 구마모토민단 창립 70주년 기념 연회에서 입춤과 국악가요를 선보여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1,600석의 좌석을 가득 메운 본공연의 오프닝 프로그램은 남도의 전통 국악인 '씻김'이었다.

'씻김'을 오프닝으로 도입한 것은 지진 피해를 입은 구마모토 거주 교민과 현지인들을 위로하고, 모든 재앙과 재해를 정화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어 진행된 사물놀이, 가야금병창, 한국민요 메들리, 부채춤과 태평성대, 어화선명 판국 등 2시간여의 공연 내내 갈채와 호응이 쏟아졌다.

공연이 종료되고 무대 인사를 마친 후에도 현지 시민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공연단을 기다려 긴 포토타임 시간을 가졌다.

주후쿠오카 한국총영사관 손종식 총영사는 "이제껏 큐슈 지역의 한국 예술 공연중 가장 감동적이었고 관객들의 반응이 놀라웠다"고 평가하면서 "가능하다면 큐슈 전 지역을 순회 공연해 한국 전통예술의 '한류'를 전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지방신문을 살려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고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전남매일 광주 시내지국 현황

■ 동구	■ 북구
중앙 223-2378 010-3635-1195	운암 525-3761 010-6886-3761
충장 233-4123 010-7755-8824	양산 574-3745 010-2646-3205
학운 225-0651 010-3640-2454	오치 261-9461 010-3629-0146
■ 서구	문흥 261-9462 010-7601-4480
광천 374-2126 010-9602-2565	일곡 573-3200 010-9273-0105
쌍촌 372-6659 010-6636-2775	두암 264-7074 010-2684-6091
화정 381-2156 010-4235-0902	중흥 433-1503 010-4601-2080
상무 372-7625 010-5013-3889	북부 222-2524 010-2656-4543
풍암 681-3179 010-6634-5084	■ 광산구
■ 남구	첨단 971-7374 010-3613-2312
봉선 653-1920 010-9474-0212	신가 952-4864 010-3648-2549
진월 653-6900 010-5662-7449	월곡 952-1687 010-3612-1687
월산 010-8245-1625	우산 951-9954 010-5018-0024
남부 651-1833 010-2943-8016	수완 959-1414 010-3101-2526
송하 010-8620-1925	송정 941-7070 010-3976-0123
	혁신 010-4623-9622

■ 전남매일 시·군 지사 현황

광산지사 010-3601-1102	담양지사 010-4154-8277	영암지사 010-4624-8409
목포(갑) 010-3272-2765	곡성지사 010-6764-6100	무안지사 010-3621-8989
목포(을) 010-3635-6777	구례지사 010-5431-4006	함평지사 010-3773-2522
목포(병) 011-632-0323	고흥지사 010-9151-2828	영광지사 010-8666-2882
여수지사 010-8648-1236	보성지사 010-3601-2060	장성지사 010-3666-1300
순천지사 010-2547-7890	화순지사 010-3666-5888	완도지사 010-5619-7020
나주(갑) 010-5617-2605	장흥지사 010-3613-6114	진도지사 010-3624-4777
나주(을) 010-3713-7458	강진지사 010-6646-1241	신안지사 010-4627-1472
광양지사 010-3622-9898	해남지사 010-8181-2627	

M 전남매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대표전화 062) 720-1000 / 구독신청 및 배달문의 062) 720-1098
팩스 : 월간국·관리국·사업국·판매국·광고국 062) 720-1020 / 편집국·기사제보 062-720-1080-82
이메일 편집국 : jndn@chol.com 관리국 : jsm7139@nate.com 월간국 : jnreviews@hanmail.net
광고국 : jnmi1000@hanmail.net 마라톤대회 : 0518run@hanmail.net 글짓기대회 : peace20090818@hanmail.net